

2015 6. 28 연중 제 13 주일

제 1 독서 : 지혜서 1,13-15; 2,23-24 <악마의 시기로 세상에 죽음이 들어왔다. >

제 2 독서 : 고린토 2 8,7.9.13-15 <여러분이 누리는 풍요가 가난한 형제들의 궁핍을 채워 줍니다.>

복 음 : 마 르 코 5,21-24.35 -43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 >



Resurrection of Jair's daughter/Ilya Repin (1844-1930)

mariasarang.net

베이커스필드 성클레멘테성당 : 본당 주임신부 전홍식 요아킴

오늘은 연중 제 13 주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옛날에는 남자들은 머리에 상투를 했고 여자들은 쪽을 지었습니다. 또한 부모로부터 물려 받은 머리를 함부로 자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머리가 긴 사람도 있고 짧은 사람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여자가 바지를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여자도 바지를 입습니다. 어떻게 남자가 바지를 입습니까? 그러나 영국의 스코트랜드 지방의 민속악기인 백 파이프를 연주하는 악단들을 보면 아주 짧은

스커트를 입고 연주하는 광경을 보셨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바뀔 수가 있는 가치들입니다. 시대에 따라서, 풍습에 따라서 다 바뀔수가 있는 가치들입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어도, 장소가 달라져도 바뀌지 않는 절대적인 가치들이 있습니다. 바로 하느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자연법들은 인간이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는 이렇고, 여자는 이렇고 하는 생각은 바꿀수가 없는 것입니다. 남자는 남자식으로, 여자는 여자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사람대로 생각을 하고, 동물은 동물대로 생각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바로 결혼이라는 관념도 우리가 바꿀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입고있는 이 제의의 색깔을 초록색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그린이라하고, 스페인어로는 베르데라고 합니다. 말로 표현은 다르게 하지만 그 내용은 똑같습니다. 즉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개념이 같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변할수 없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역을 할 수있고 번역을 할수 있는 것은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진리를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혼 자체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두 개체가 만나서 희희낙낙하면서 사는 것이 결혼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결혼이라는 개념입니다. 그것은 옛부터 모든 인류에게 있어 왔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데려다 첩으로 사는 경우도 있지만 항상 조강지처는 있어 왔습니다. 모계사회는 많은 남자를 거느리고 살았지만 역시 여자와 남자가 결혼을 하여 사회를 이루었습니다. 이번에 연방 대법원에서 동성결혼이 합법적이라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지금의 정치는 국민들을 잘살게 하기위하여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인기주의입니다. 실제로 국민들의 일상 생활은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오바마대통령이 동성결혼이 합법적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을 때에, 이를 두고 ‘미국의 승리’ 라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과연 이것을 ‘미국의 승리’ 라고 할수 있을까요? 이것은 미국의 승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패배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를 짓고 삽니다. 그런데 그죄가 부끄러워서 숨기면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며 사는 것입니다. 지금 동성결혼을 합법화 했다는 것은 죄가 죄가 아니라는 것을 선포 하는 것입니다. 즉 죄로부터 어둠으로부터, 나를 바꾸고자 하는 노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미국의 승리가 아니라 패배입니다. 어떠한 패배이냐하면, 바로 진리를 지키려고 하는 싸움에서 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자는 여자고, 남자는 남자입니다. 분명히 차이는 있습니다. 그들이 결혼이라고 말하는 것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과 같은 것입니까? 물론 그사람들이 함께 살고 싶다! 그것은 저도 반대를 안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면서 죄를 짓고 살겠다고 하면, 제 1 독서에 나오는 것처럼 지옥가는 삶을 선택하여 산다면, 하느님이 계시건 안계시건 나는 상관 않겠다!고 하며 산다면, 그들이 나하고는 믿음이 틀린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한동안 나온 말이 있지요 “Gay Unit” 저는 특히 반대 할 이유가 없어요, 그것은 새로운 윤리이니까. 그러나 **결혼이라는 개념은 이미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심어 주신 진리입니다. 이것은 바꿀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지금 인간의 힘으로써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왜 죄를 지었습니까? 이브가 무슨 유혹을 받았습니까? 뱀한테, 무화과 열매를 먹으면 하느님과 같아진다는 그런 유혹을 받았지요? 그리고 바벨탑은 왜 지었습니까? 하느님과 같이 되겠다는 것! **하느님께서 심어 놓으신 진리를, 우리 마음대로 바꾸겠다는 것은, 바로 하느님의 권위에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느님과

갈아진다는 것 뿐만이 아니라, 하느님 위에 서겠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이미 만들어 주신 진리를 인간이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교황님이 ‘**Laudato Si**’ 라는 교서를 발표 하셨습니다. 그 교서에는 바로 우리 인간이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순리대로 살아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서에서는 **나태는 대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의 대중매체는 자기들이 좋게, 또한 자기들의 입맛에 맞도록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거의 무방비상태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지않고 알고 있지 않으면, 그들의 잘못된 정보에 계속 속아 넘어 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길을 걷고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요즘 ‘산디아고로 가는 길’이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순례의 길에 화살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화살표를 잘못 따라가다 보면 자기가 가고자 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 입니다. 가다가 길이 없어지기도 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따라갔는데 엉뚱한 곳에 도착하기도 하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 다 머리도 좋으시고 능력도 있으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과연 내가 올바른 화살표를 찾고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누가 작난으로, 또는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화살표를 따라가고 있는 지? 한번 심사숙고해서 따라가야 될것 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엉뚱한 곳을 향하여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네비게이션이 있습니다. 분명히 잘 따라갔는데 나중에는 길이 없어요. 몇년전에 관광버스가 네비게이션을 따라가다가 깜깜한 밤에 바다로 들어갔다고 하지요. 형제 자매님들 어느 네비게이션을 가지고 따라 가고 있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믿음을 강조하십니다.

“ 두려워 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 ”

우리가 지니고 살아야하는 네비게이션은 내 느낌과 내 생각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제시 해주시고 가리켜 주시는 바로 그길이라는 것. 비록 내 일상 생활에서 억울함을 느끼고, 내 신앙과 다르지만,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것이 올바른 길 이라는 것!** 오늘 제 1 독서에서 말씀하시지요,

“정의는 죽지 않는다”

진리는 변할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죽음을 맛보게 되리라는 것이 제 1 독서의 말씀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모두 생명의 삶을 살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요즘 느끼는 것이 미사에 나오시는 분들, 주님께 축복 받으신 분이세요. 내가 원해서 나오는 것이지! 맞습니다. 그러나 축복을 받지 못하시면 그것도 힘듭니다. 그렇지요

“하느님을 두려워 하는자, 복되도다.”

그런데 우리형제 자매님들은 두려워 하시는 분들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사랑하시려고 노력 하시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하느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두려워 하는 것보다 더 복됩니다. 그래서 늘 기쁜 마음으로 하느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며 살아가신다면 우리의 일상 생활이 더욱 풍요롭고 평화로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기도

아버지, 가난하게 사시다가 십자가에 달리신 성자의 신비로,
온갖 복을 베풀어 주셨으니,
저희가 가난과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고,
형제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쁨을 전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제 1 독서

<악마의 시기로 세상에 죽음이 들어왔다.>
지혜서의 말씀입니다. 1,13-15; 2,23-24

하느님께서서는 죽음을 만들지 않으셨고,
산 이들의 멸망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느님께서서는 만물을 존재하라고 창조하셨으니,
세상의 피조물이 다 이롭고,
그 안에 파멸의 독이 없으며,
저승의 지배가 지상에는 미치지 못한다.
정의는 죽지 않는다.
정녕 하느님께서서는 인간을 불멸의 존재로 창조하시고,
당신 본성의 모습에 따라 인간을 만드셨다.
그러나 악마의 시기로 세상에 죽음이 들어와,
죽음에 속한 자들은 그것을 맛보게 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시편 30(29),2 와 4.5-6.11-12 ㄱ과 13 ㄴ (◎ 2 ㄱㄴ 참조)

◎ 주님, 저를 구하셨으니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 주님,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당신은 저를 구하시어,
원수들이 저를 보고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주님, 당신이 제 목숨 저승에서 건지시고,
구렁에 떨어지지 않게 살리셨나이다.

◎ 주님, 저를 구하셨으니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 주님께 충실한 이들아,
주님께 찬미 노래 불러라.
거룩하신 그 이름 찬송하여라.
그분의 진노는 잠시뿐이나,
그분의 호의는 한평생이니,
울음으로 한밤을 지새워도,
기쁨으로 아침을 맞이하리라.

◎ 주님, 저를 구하셨으니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 “들으소서,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저의 구원자 되어 주소서.”
당신은 저의 비탄을 춤으로 바꾸시니,
주 하느님, 영원히 당신을 찬송하오리다.

◎ 주님, 저를 구하셨으니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제 2 독서

<여러분이 누리는 풍요가 가난한 형제들의 궁핍을 채워 줍니다.>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2 서 말씀입니다. 8,7.9.13-15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곧 믿음과 말과 지식과 온갖 열성에서,
또 우리의 사랑을 받는 일에서도 뛰어나므로,
이 은혜로운 일에서도
뛰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부유하시면서도
여러분을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어,
여러분이 그 가난으로 부유하게 되도록 하셨습니다.
다른 이들은 편안하게 하면서
여러분은 괴롭히자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이루게 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누리는 풍요가
그들의 궁핍을 채워 주어
나중에는 그들의 풍요가 여러분의 궁핍을 채워 준다면,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많이 거둔 이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이도 모자라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환호송

2 티모 1,10 참조

◎ 알렐루야.

○ 우리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님은 죽음을 없애시고,
복음으로 생명을 환히 보여 주셨네.

◎ 알렐루야.

복음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5,21-43 <또는 5,21-24.35 L -43>

그때에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건너편으로 가시자

많은 군중이 그분께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계시는데,

야이로라는 한 회당장이 와서 예수님을 뵈고 그분 발 앞에 엎드려,

“제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가서서 아이에게 손을 얹으시어
그 아이가 병이 나아 다시 살게 해 주십시오.” 하고 간곡히 청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서는 그와 함께 나하시었다.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르며 밀쳐 댔다.

< 그 가운데에 열두 해 동안이나 하혈하는 여자가 있었다.

그 여자는 숭한 고생을 하며 많은 의사의 손에 가진 것을 모두 쏟아부었지만,

아무 효험도 없이 상태만 더 나빠졌다.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군중에 섞여 예수님 뒤로 가서 그분의 옷에 손을 대었다.

‘내가 저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구원을 받겠지.’

하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과연 곧 출혈이 멈추고 병이 나은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예수님께서서는 곧 당신에게서 힘이 나간 것을 아시고 군중에게 돌아서시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반문하였다.

“보시다시피 군중이 스승님을 밀쳐 대는데,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십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누가 그렇게 하였는지 보시려고 사방을 살피셨다.

그 부인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 떨며 나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사실대로 다 아뢰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셨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그리고 병에서 벗어나 건강해져라.”

예수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는,
“따님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스승님을 수고롭게 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말하는 것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 외에는
아무도 당신을 따라오지 못하게 하셨다.

그들이 회당장의 집에 이르렀다.

예수님께서는 소란한 광경과
사람들이 큰 소리로 울며 탄식하는 것을 보시고,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어찌하여 소란을 피우며 울고 있느냐?

저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내쫓으신 다음,
아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당신의 일행만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탈리타 쿴!”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는 뜻이다.

그러자 소녀가 곧바로 일어서서 걸어 다녔다.

소녀의 나이는 열두 살이었다.

사람들은 몹시 놀라 넋을 잃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이 일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거듭 분부하시고 나서,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이르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